

광주시 쓴소리위원회, 시민 소통창구 자리매김

3차 회의...무등산 난개발·전동킴보드 등 4건 대책 논의 이 시장 "활발한 소통으로 지역발전 소중한 동력 되길"

광주시는 12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시 쓴소리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시정 전반에 대한 가감 없는 쓴소리를 들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들이 전체 및 분과별 공유방 등을 통해 나눈 의견을 토대로

제안된 총 12건 중 주요 4건을 논의했으며, 8건은 서면 검토의 형태로 진행됐다. 위원회는 우선 ▲무등산 난개발을 막자(무등산 케이블카 필요한가?, 무등산 신양개울 신축 안된다) ▲방치차량 해결방법 모색 ▲도로교통법 개정 따른 전동킴보드

대책 ▲군공항 이전 해법제시 등 4건을 제안했다. 광주시는 무등산 난개발 방지와 관련,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의 향후 기관·시민단체 등 시민 의견이 모아질 경우 검토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무등산 주변 개발과 관련해 단기적으로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치차량 해결방법 모색에 대해서는 행

안부 '생활불편 신고앱'을 운영 중이며, 주민 불편과 도시미관 저해를 막기 위해 신속한 처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동킴보드 대책은 시와 대여업체간 업무협약을 체결해 주차 가이드라인 및 안전 교육 공동협력 기준을 마련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캠페인 등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군공항 이전 해법제시와 관련해서는 "시민권익위원회의 민간공항 이전 및 군

공항 이전 여론조사 권고안을 바탕으로 전남도,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과 소통·협력 등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지난 두 차례 회의에서 57건의 제안을 받아 6건은 추진을 완료했으며, 44건은 추진 중이거나 추진할 계획이며, 장기검토 4건, 3건은 미반영됐다. 김경희 위원장은 "이제 3회째를 맞고 있어 아직 위원회 운영에 개선할 점이 많이 있지만, 회를 거듭할수록 제대로 쓴소리를 할 수 있는 기틀을 잡아가는 것 같

다"며 "쓴소리위원회가 광주시정에 쓴소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섭 시장은 "오늘 안건을 살펴보니, 위원들이 시정에 애정을 갖고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쓴소리위원회가 지역현안에 대한 활발한 소통 창구로 자리매김해 광주발전에도 소중한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시민의 의견을 여과없이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애란 기자



김종호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12일 오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지쿠터', '쌍쌍' 등 2개 공유PM서비스사와 안전한 전동킴보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중수 지바이크 대표, 김종호 행정부시장, 윤문진 피유엠피 대표. /광주시 제공

시, 전동킴보드 공유서비스 업무협약 주차지침·보험가입·안전수칙 등 협력

광주시가 전동킴보드 안전관리를 위해 공유서비스 업체들과 손을 잡았다. 광주시는 1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지쿠터', '쌍쌍' 등 개인형 이동장치(퍼스널 모빌리티) 공유서비스 업체 2곳과 전동킴보드 안전관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주차지침, 보험가입 의무화, 이용자 안전수칙 등과 관련한 협력내용이 담겼다. 시는 전동킴보드 주차 제한·관장 구역 등을 제시하고, 이용자와 보행자 안전을 관리할 계획이다. 업체들은 주차지침을 안내하고 기기반납 절차를 강화하며 고객센터에 기기방치신고가 들어오면 곧바로 수거한다. 전동킴보드는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떠오르면서 이용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

만, 주차기준 등이 없어 안전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날 10일부터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퍼스널 모빌리티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되며 만 13세 이상 미성년자도 이용할 수 있게 돼 관리 필요성이 더 부각됐다. 시는 자치구, 교육청,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교통문화연구소, 공유업체와 간담회를 열어 퍼스널 모빌리티 질서 확립, 활성화 방안 등을 고민해왔다. 김종호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교통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퍼스널 모빌리티가 시민들의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며 "이용자뿐 아니라 보행자도 만족할 수 있는 이용문화가 정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영세조선업 '맞춤형 환경건설링' 도, 환경관리 전문성 부족 해소

전남도는 코로나19 및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은 도내 중소·영세 조선업종을 대상으로 다음달 4일까지 환경건설링 지원에 나선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영암지역은 조선산업 불황으로 지난 2018년 5월부터 고용·산업위기 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선박 수주량 감소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실정이다. 특히 대기관리관련 지정과 비산배출시설 관리제 시행 등 정부의 대기관리 정책까지 강화돼 중소영세 조선업종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보강해야 할 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환경관리 전문성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환경건설링 지원에 나선다. /김용현 기자

광주시, 민주·인권기념파크 사업 점검

김종호 부시장, 옛 광주교도소 부지 현장 살피

광주시는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 조성할 예정인 민주·인권기념파크와 광주솔로몬로파크 사업현장을 현장 점검했다. 김종호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12일 민주·인권기념파크와 광주솔로몬로파크 사업현장을 방문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문제점 진단 및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민주·인권기념파크 조성사업은 문재인 대통령 국정과제 지역공약으로 국비 1,155억원을 투입해 북구 문흥동 옛 광주

교도소 부지를 민주·인권 역사체험 교육 및 청년 창업지원 혁신성장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오는 2022년까지 실시 계획 인가·고시를 마치고 2023년부터 실시설계와 사적지 원형보존, 역사체험 및 혁신성장 공간 조성 등을 거쳐 2025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광주솔로몬로파크 사업은 법무부에서 대전(충청권), 부산(영남권)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조성하는 로(Law)파크 건립사업의 하나로, 광주시는 모의재판,

입법절차 등 법 상식을 체험과 놀이로 쉽게 이해시키고 건강한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시설로 조성할 방침이다. 솔로몬로파크는 2018년 신축 설계공모를 거쳐 지난 해 9월 실시설계, 10월 실시계획인가와 공용 건축물 건축협의 등 절차를 마치고 공사를 진행 중이다. 김종호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5·18 사적지인 옛 광주교도소의 상징성과 역사가 조화를 이루고, 인권도시 광주의 대표 교류·교육공간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골프장·유흥업소 방문 코로나19 확진

광주·전남 공무원·공기업 직원 등 '중징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시기에 골프장·유흥업소 등을 방문해 확진 판정을 받은 공무원·공기업 직원이 중징계를 받았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 인사위원회는 최근 영암지역 한 면장 A씨에게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렸다. A씨는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공무원 소모임 자제령이 있

었던 지난 7월 초 다른 공무원 등 일행과 골프, 식사를 함께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군청·면사무소·도청 일부 사무실이 일시 폐쇄됐으며, 면사무소에서는 추가 확진자가 나오기도 했다. 소청 등 진행 상황에 따라 징계수위는 바뀔 수도 있다. 광주 상무지구 유흥업소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8월 유흥업소를 방문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김대중컨벤션센터 직원도 최근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공기업 직원인데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유흥시설을 방문하는 등 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김대중컨벤션센터는 판단했다. 당시 센터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시장, 시의장, 교육감 등이 진단검사를 받기도 했다. 다만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징계수위를 결정했다고 센터는 전했다. /황애란·김용현 기자

광주 그린에너지 규제자유특구 지정 ▶1면에서 계속

시가 신청한 그린에너지 ESS 발전은 개별 태양광에서 생산한 전력을 한 곳에 집적된 태양광 발전장치에 저장하고, 전기차 충전사업자 등과 전력 직거래를 실증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지역균형 뉴딜, 에너지신산업 육성과 궤를 같이 한다. 정부는 그린·디지털뉴딜 관련 규제자유특

구 지정을 확대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 역량을 활용해 지역 선도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시는 그린에너지 ESS 발전사업을 추진, 2024년 11월까지 첨단산업단지 일원에 195억원(국비 111억원·지방비 70억원·민자 14억원)을 투입한다. 첨단산업 단지에 있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모집해 태양광발전 전력을 통한 ESS기반 전력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고, 배전망 등 인프라를 구축한다. 시는 ESS기반 스마트 전력망을 구축

해 전력수급 안정화와 신재생에너지 거래 시장을 확대해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2045년 에너지 자립도 실현과 연계해 지역 에너지산업 육성, 2030년까지 매출 1,425억원, 신규 채용 713명, 기업 60곳 유치를 목표로 세웠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형 그린뉴딜 사업으로 추진하는 2045에너지자립도시 실현과 에너지신산업 육성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매 광고 안내

전남매일 광고는 전화 및 팩스로 받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구인·구직·모집·매매·부동산·광고·영업·분양·모임

광고국 062) 720-1016, 1017
팩스 062) 720-1020
이메일 jnm11000@hanmail.net

자치사대를 선도하는 종합시사매거진

월간 전남매일

지방자치 시대 동반자
분권시대 선도자

투고를 기다립니다
E-mail : jnreviews@daum.net

구독문의 062) 720-1006

부실 채권 **못 받은 돈** 회수 전문

판결문, 공증, 공사대금, 각서 계약서, 입금내역, 각종 채권상당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음

채무자 재산, 신용, 주거은행, 차량 등 파악
실거주지 파악,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연락두절 채무자 파악
개인 법인 신용조사 재산조사만 별도가능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니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원모집 신입·경력사원
영업팀 / 채권추심팀
▶지사오피스 상담◀

호남지사 062-417-4717 / 010-3602-6324
(주)제이엠신용정보
채권추심 전문법인

전남매일 연중 일거리 창출 캠페인

여러분의 취업성공,
활기찬 경제도시
남구가 함께합니다

남구 일자리박람회
607-2672

취업상담 및 알선
607-2675

남구 공공일자리
607-2673

남구 취업지원센터

NAVER 드림꽃도매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축화회환 3단
근조회환 3단

정품 화환 75,000원 재사용 화환 50,000원

Tel, 062) 233-9961 Fax, 672-996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